



원스톱 수출·수주지원단, 6개 정책금융기관과 수출금융 간담회 개최

- '26년 기관별 수출금융 지원계획 공유 및 향후 협력 강화 방안 논의

원스톱 수출·수주지원단(단장: 재정경제부 1차관, 이하 '지원단')은 1.21일(수) 한국수출입은행에서 6개 정책금융기관(Fin-eX*)과 수출금융 간담회를 개최했다.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 금년 기관별 수출금융 지원 계획을 공유하고,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* 수출금융 협의체(Fin-eX): '24.10월 지원단과 6개 정책금융기관 간 협력강화를 위해 구성 (한국수출입은행, 한국무역보험공사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기업은행)

유법민 지원단 부단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“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어려운 대외환경에서도 역대 최대인 7,097억불을 달성하였다”고 하면서, “높은 환율 변동성, 원자재 등 공급망 리스크, 주요 수출국 무역장벽 확대 등 금년 대외환경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으로 수출 모멘텀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업지원이 필요한 시기”라고 언급했다.

이후 간담회에서 각 기관은 기관별 주요 수출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. 먼저 한국수출입은행은 AI 전환 및 전체 밸류체인 지원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5년간 20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며, 반도체·바이오 등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역시 8.5조원으로 확대(전년대비 +0.5조원)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대·중소 상생금융 및 5극3특(5개 초광역권 및 3개 특별자치도) 성장엔진 산업군별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등을 통해 중소·중견 기업에 114조원을 공급하고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을 지원하는 해외법인지원자금을 700억원으로 확대(전년대비 +89억원)하는 등의 계획을 강조했다.

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은 수출지원 보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출기업에 총 15.5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(전년대비 +4천억원)할 예정이며, 기술보증기금 또한 6대 핵심성장엔진 산업* 등으로 중점지원 분야를 확장하여 수출기업에 3.6조원 이상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. IBK기업은행은 원스톱 수출 성장지원 대출 신설 등 2.2조원 규모(전년대비 +0.5조원)의 수출금융을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.

* AI, 바이오, 문화·콘텐츠, 방산, 에너지, 첨단제조

마지막으로 유법민 부단장은 “지원단은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겠다”고 하면서 “향후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, 기업들의 환위험 대응 역량 강화, 원자재 수급 등 공급망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설명회를 정책금융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

지원단은 다음주 수출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(일시: '26.1.29, 장소: 무역협회)를 시작으로, 권역별·산업별 맞춤형 수출금융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밀착형 애로 해소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원스톱 수출·수주지원단 금융재정지원팀	책임자	팀 장 이명진 (02-6000-5785)
		담당자	사무관 임동욱 (ldu19@korea.kr)

